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권 4호 (2019년 12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 | |
|--|-------------------------|
| 한국 아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 김원경, 권희경 |
| 주관적 인지저하 노인들의 기억의 긍정성 효과: 정상 노인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와의 비교 | 이현호, 강연욱 |
| 학령 후기 자녀가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와 및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 설경옥, 장지혜, 신지윤, 하소정, 김서영 |
| 분노 정서조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령차 및 개인차: 노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 비교 | 강효신, 권정혜 |
| 성인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성형수용태도 종단연구 | 김현지, 이지현, 권혜중, 설경옥 |
|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심리적 통제와 청년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자녀의 자율성 욕구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 이인영, 정영숙 |
| 청소년 성격평가질문지(PAI-A) 증보판의 요인구조: 일반 및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 손현진, 박은영, 홍상황 |
|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 이지현, 양수진 |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인 : 송하나(성균관대학교)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93 진빌딩 2층
전 화 : 02-336-6672

인쇄일 : 2019년 12월 15일
발행일 : 2019년 12월 15일
제작처 : 책과공간
(02-725-9371)

편집위원장 :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편집위원 : 강연욱(한림대학교) 김기연(중앙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노수림(충남대학교)
서미정(제주대학교) 송주현(California State University) 송현주(연세대학교) 신희영(전북대학교)
유연옥(계명대학교) 최유정(Harvard University) 한세영(이화여자대학교)
Daniel Choe(UC Irvine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심사위원 : 강호신(경성대학교) 김근영(서강대학교) 김기연(중앙대학교) 김연수(전주대학교)
남미경(인간발달복지연구소) 서고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동기(한림대학교) 서미정(제주대학교)
설경옥(이화여자대학교) 설현수(중앙대학교) 성은현(호서대학교) 손은정(계명대학교)
양수진(이화여자대학교) 양재원(가톨릭대학교) 윤진영(세명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이종구(대구대학교) 장은영(호남대학교) 장혜인(성균관대학교) 장희순(용인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조설애(부산대학교) 하정희(한양대학교) 한세영(이화여자대학교)
한소원(서울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한국심리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32, No. 4

November 15, 2019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ditor : Seung-yeon Lee(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Yeonwook Kang(Hallym Univeristy) Giyeon Kim(Chung-Ang University)
Hei-Rhee Ghim(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o Rim Noh(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ijung Seo(Jeju National University) Ju-Hyun Song(California State University)
Hyun-joo Song(Yonsei University) Huiyoung Shin(Chonbuk National University)
Younoak Yu(Keimyung University) Youjung Choi(Harvard University)
Sae-Young Han(Ewha Womans University)
Daniel Choe(UC Irvine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32 권 제 4 호 / 2019. 12.

| | |
|--|------------------------------|
| 한국 아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 김원경, 권희경 / 1 |
| 주관적 인지저하 노인들의 기억의 긍정성 효과: 정상 노인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와의 비교 | 이현호, 강연욱 / 21 |
| 학령 후기 자녀가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와 및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 설경옥, 장지혜, 신지윤, 하소정, 김서영 / 43 |
| 분노 정서조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령차 및 개인차: 노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 비교 | 강효신, 권정혜 / 59 |
| 성인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성형수용태도 종단연구 | 김현지, 이지현, 권혜중, 설경옥 / 83 |
|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심리적 통제와 청년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자녀의 자율성 욕구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 이인영, 정영숙 / 103 |
| 청소년 성격평가질문지(PAI-A) 증보판의 요인구조: 일반 및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 손현진, 박은영, 홍상황 / 123 |
|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 이지현, 양수진 / 151 |

한국발달심리학회

한국 아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Received: October 15, 2019
Revised: November 25, 2019
Accepted: December 6, 2019

김원경¹, 권희경²
고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¹,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²

교신저자: 권희경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Effects of psychological, socio-environmental,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factors on school adjustment in Korean children

E-MAIL:
bluechess@kku.ac.kr

Wonkyung Kim¹, Heekyoung Kwon²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¹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nkuk University²

© Copyright 2019.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 요인을 탐색하고 남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한국아동패널 10차년도(2017)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의 아동 633명의 학교적응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학교적응 관련요인으로 아동심리 변인(행복감,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사회환경 변인(친구수, 또래애착, 학교선호도, 교사선호도), 어머니 양육행동(권위, 권위주의, 허용) 및 아동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 예언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 학교적응을 예언하는 변인은 또래소외, 학교선호도, 교사선호도, 어머니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였다. 아동 심리변인, 사회환경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 각각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아동 심리변인 중 전반적 행복감이 유의미한 예언 변인이었으며, 사회환경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남아의 경우는 또래실패, 학교선호도, 교사선호도, 어머니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학교적응을 예언하는 변인이었고 여자의 경우는 또래소외, 학교선호도, 교사선호도가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성별에 따라 상대적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학교적응, 행복감, 학교선호도, 교사선호도, 또래실패, 또래소외, 어머니 양육행동

전생애 발달의 관점에서 아동기는 가정에서 학교로 사회적 환경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발달적 적응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Bronfenbrenner, 1979). 특히 학령기 아동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할애하므로 학교에 적응하는 것은 발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은영, 2011; 안선희, 2002; 조용주, 최홍일, 2015). 학교적응이란 아동이 학교라는 사회적 환경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며 조화를 이루어 적응을 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곽수란, 2006; 박성혜, 윤종희, 2013; 이희은, 문수백, 2011). 초등학교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신의 학습수행이나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과 같은 바람직한 행동특성들이 이후 성인기에 직면하는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초등학교 시절 학교적응은 아동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발달 양상이 강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정윤, 이경아, 2004; 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특히 전생애 발달적 관점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해 면밀히 탐색해 보는 것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어 매우 의미가 있으며 더 나아가 전생애 발달의 기초적 개념을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련 요인들을 탐색해 보고자한다. 또한 관련요인을 아동의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으로 세분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

의 흐름은 아동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생태학적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되고 있으며 생태학적 환경요인으로는 학교변인과 가족변인을 들 수 있다(박영진, 2019; 서혜전, 노성향, 2018). 학교적응 관련 요인으로서의 아동심리 변인은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등의 자아관련 요인이 있으며 위험요인으로서 문제행동이나 우울, 불안 등의 정서상태를 들 수 있다(김분, 최연실, 2012; 박성혜, 윤종희, 2013; 박영진, 2019; 염정원, 조한익, 2016; Bonanno, 2004).

초등학생 대상 학교적응 관련 요인 연구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들 수 있다(남영자, 박태영, 2009; 서혜전, 노성향, 2018). 자아존중감은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로서 학교적응을 포함하여 사회적, 발달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이미 강조되어 왔다(권혜진, 성미영, 2014; 박성혜, 윤종희, 2013; 원재순, 김진숙, 2016; 이영예, 안권순, 2013). 자아존중감 외에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중요한 변인으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은 주관적 행복감이다. 삶의 만족도 또는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 주관적 행복감의 개념은 긍정심리학 개념이 도입된 이후 최근에 더욱 주목받는 개념이다(강수현, 2019).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만족도는 주관적 측면에 의해 평가되는 것으로 객관적이며 인지적인 평가보다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정도를 반영하는 주관적 행복감 요인이 아동의 행복감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개념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박희경, 강인설, 2014). 또한 아동기 행복감은 학교적응을 포함한 아동기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이후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주관적 행복

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선영운, 2014;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8;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행복감을 독립변인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학교적응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표적 변인으로 문제행동을 들 수 있다. 문제행동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대부분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적 문제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다(김신애, 이형실, 임수경, 2008; 이영애, 정현희, 2015).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며 이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문제행동 요인은 매우 중요한 위험요인이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박용한, 2014; 염정원, 조한익, 2016). 학교적응 관련요인으로 문제행동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 그 대상이 청소년이거나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제한한 것이 많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는 드물다(백승희, 전현정, 정혜원, 2014; 이봉주, 민원홍, 2015; 이은주, 2011). 따라서 학교적응 관련요인으로 문제행동의 영향력을 탐색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에 대한 문제행동의 학교적응 관련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학교적응 관련 요인에 관한 또 다른 연구의 흐름은 아동의 사회환경적 요인 및 가족요인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다. 학령기 아동의 대표적 사회환경에 해당하는 학교변인이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학교변인으로는 교사와의 관계,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 변인과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박은영, 2011; 백미숙, 조옥귀, 2017; 유설희, 박보경, 도현심, 2015). 또래관계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학교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다(김영숙, 조한익, 2015; 조용주, 최홍일, 2015; 천유리, 한기순, 2012). 또래관계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교사와 애착관계 형성이나 부모와 애착과 같은 다른 사회환경적 요인과 함께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채선화, 김진숙, 2105; 현의숙, 황혜정, 2019), 학교적응의 사회적 환경적 관련 요인으로 교사와 아동 관계, 또래관계, 학교생활 요인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요인으로는 주로 부모 양육행동이나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과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 학교적응과 부모 양육행동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박성혜, 윤종희, 2013; 조용주, 최홍일, 2015). 어머니 양육행동 중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학교적응에도 간접적 영향력을 갖는 것을 보고하는 연구결과(임선아, 2013; 조운주, 한준아, 김지현, 2019)를 통해서도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 학교적응 관련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학교적응의 관련 요인 연구의 주요 개인 요인으로 성별에 따른 효과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적응 관련 요인 중 문제행동이나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영숙, 조한익, 2015; 백승영, 이승희, 2014). 또한 초등학교 1학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여아가

남아에 비해 학교적응이 더 수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충일, 2018).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적응 관련요인을 파악한 선행연구에서 남녀 학생 간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변인이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의 친밀성 관련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황은희, 강지숙, 2012). 이처럼 성별은 학교적응의 관련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고찰 결과,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서의 성별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개인의 심리적 요인(예: 자아존중감)이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의 성별 효과를 살펴보거나 양육행동이나 교육결과 같은 부모 요인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과 같이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력으로서의 성별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또한 초등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적응에 대한 성별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상당수 존재하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 사회환경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성별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관련요인에 대해 개별적 변인으로 각각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개인적, 사회환경적 변인 중 일부분만을 포함하는 한계를 지니며(박성혜, 윤종희, 2013; 이경상, 2011; 이귀옥, 2017; 이희정, 조운주, 2010; 좌현숙, 2012),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시

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적응은 단순히 한두 개 변인의 영향력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통해 규명되어 왔던 개인 심리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각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학교적응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탐색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이경남, 2008; 이귀옥, 2017; 정미영, 문혁준,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탐색함에 있어서 아동심리 요인과 사회환경 요인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을 포함하여 그 영향력의 상대적 중요성을 탐색하고자 하며, 특히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 관련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유사한지, 또는 다른지, 또한 다르다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전국 규모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고 있는 아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 문제 1. 아동 심리변인, 사회환경 변인, 그리고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아동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에 대한 아동심리변인, 사회환경 변인, 그리고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PSKC) 조사 10차년도(2017) 자료 중 학교적응에 대한 교사 응답 자료가 확보된 아동 자료를 사용하였다(도남희 외, 2018). 한국아동패널 자료는 2008년 신생아를 출산한 전국 2,150가구를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10차년도 데이터는 조사대상 아동연령이 만 9세가 된 시점이므로 아동기 특성을 탐색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육아정책연구소(2017)에 따르면, 본 자료는 패널 대상자들에게 전화조사를 통해 기초정보에 대한 사전 조사 후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조사원이 방문하여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면접 및 관찰 조사와 수행검사가 이루어졌다. 부모가 작성한 질문지는 가구 방문 수거 하였다. 가구방문 조사 후 보호자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담임교사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 질문지는 web 기반 조사로 시행되었다. 10차년도 자료는 총 1,685가구가 유효 패널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결측치를 완전제거법(Listwise deletion)으로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633명의 아동, 부모, 교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 성별은 남아가 326명(51.5%), 여아가 307명(48.5%)의 분포를 보였다. 연구 참여 아동 월령은 평균 112.6개월(범위: 110개월-116개월)이었으며 평균연령 만 9.4세에 해당하였다. 연구 대상자 아동 어머니 평균 연령은 만 39.9세(범위: 29세-55세)이었으며, 가구 월평균 소득은 551만원(범위: 90만원-8500만원)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약 38%에 해당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2~3년제 대학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 | 사례수(명) | % |
|--------|-------------|--------|------|
| 아동 성별 | 남자 | 326 | 51.5 |
| | 여자 | 307 | 48.5 |
| | 전체 | 633 | 100 |
| 어머니 학력 | 중학교졸업 | 1 | 0.2 |
| | 고등학교졸업 | 170 | 27.2 |
| | 2~3년제 대학 졸업 | 184 | 29.4 |
| | 4년제 대학교 졸업 | 239 | 38.2 |
| | 대학원 졸업 | 32 | 5.1 |
| | 전체 | 626 | 100 |
| 가구소득 | 200만원 이하 | 24 | 4.1 |
| | 200~400만원 | 214 | 36.1 |
| | 400~600만원 | 231 | 39.1 |
| | 600~800만원 | 76 | 12.8 |
| | 800~1000만원 | 35 | 5.9 |
| | 1000만원 이상 | 12 | 2.0 |
| | 전체 | 592 | 100 |

졸업, 고등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아동패널연구 10차년도(2017)에 사용된 도구 중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아동 학교적응, 아동 전반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내재적 문제행동 및 외현적 문제행동, 아동 친구관계(친구 수, 또래애착), 학교생활(학교선호도, 교사선호도), 어머니 양육행동 도구를 활용하였다.

아동 심리변인

아동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 일상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6개 영역(학교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생활,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아동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 대해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점의 범위는 6점~24점이며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74로 나타났다.

아동 자아존중감

아동 자아존중감 측정은 '자신에 대해 만족하니?'와 같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정도를 묻는 5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총점의 범위는 5점~20점이며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76이었다.

아동 문제행동

아동 문제행동 측정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BCL 6-18)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어머니가 자녀행동에 대해 보고하였다. 아동 문제행동은 총 120개 문항으로 내재화(32문항) 및 외현화(35문항)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응답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내재화 문제행동 하위 요인으로는 불안 및 우울 13개 문항(점수범위 : 0점~26점), 위축 및 우울 8개 문항(점수범위 : 0점~16점), 신체증상 11개 문항(점수범위 : 0점~22점)이었다. 외재화 문제행동 하위 요인은 규칙위반 17문항(점수범위 : 0점~34점), 공격행동 18개 문항

(점수범위 : 0점~36점)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특정 행동 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내재화 문제행동 .96, 외현화 문제행동 .94로 나타났다.

아동 사회환경변인

아동 친구관계

아동 사회환경적 요인은 친구관계를 측정한 친구수와 또래애착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친구 수는 남자 및 여자 친구가 각각 몇 명인지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남자 및 여자 친구 수를 합산하여 총 친구수를 구하였다.

아동 또래애착은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애착의 정도를 측정하는 총 9개의 문항이며 하위 영역으로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 소외 3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응답 하였고 소외 문항은 역산한 후 총점을 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하위 영역별 문항 내적합치도는 의사소통 .64, 신뢰 .63, 소외 .39였다.

아동 학교생활

아동 학교생활은 학교선호도와 교사선호도를 활용하였다. 학교선호도는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와 학교생활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교사선호도는 아동 학교생활에 대한 다양한 질문 중 담임교사와 관계에 관한 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신의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사는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얼마나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교사선호도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63이었다.

어머니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권위적 양육, 권위주의적 양육, 허용적 양육의 세 개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11개 하위 영역을 포함하는 6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에 응답하였다. 권위적 양육은 27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총점 범위는 27점~135점이었다. 총점이 높을수록 권위적 양육을 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권위적 양육에 대한 문항 내적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양육은 2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총점 범위는 20점 ~ 100점이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내적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허용적 양육은 15개 문항이며 총점은 15점 ~ 75점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허용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내적합치도는 .52였다.

아동 학교적응

아동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담임교사가 학교적응을 측정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 학교생활 적응 11문항, 학업수행 적응 11문항, 또래 적응 8문항, 교사 적응 5문항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에 대해 아동이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5점 척도로 교사가 응답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학교생활 적응 .84, 학업수행 적응 .94, 또래 적응 .94, 교사 적응 .57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종속변인인 아동 학교적응과

아동심리변인, 사회환경 변인 및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학교적응을 예언하는 독립변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 회귀분석에서는 아동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모든 아동심리변인, 사회환경 변인과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아동 학교적응에 대한 예언변인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회귀분석에서는 아동심리변인, 사회환경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을 분리하여 각 변인의 학교적응력에 대한 설명력을 탐색하였다. 세 번째 회귀분석에서는 아동 성별을 남녀로 구분하여 위의 두 번째 회귀분석 절차를 각각 실시하여 학교적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독립변인의 효과가 아동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탐색하였다.

결 과

학교적응 관련 변인 분석

학교적응과 아동심리변인(전반적행복감, 자아존중감, 내재적 문제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사회환경변인(친구 수, 또래애착, 학교선호도, 교사 선호도),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간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적응은 아동 전반적 행복감($r=.25, p < .01$), 아동 자존감($r=.14, p < .01$), 총 친구수($r=.05, p < .05$), 또래 의사소통($r=.18, p < .01$), 또래 신뢰($r=.20, p < .01$), 학교선호도($r=.28, p < .01$), 교사선호도($r=.27, p < .01$), 어머니 권위적 양육행동($r=.06, p < .05$) 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 전반적 행복

감과 아동 자존감이 높을수록, 총 친구수가 많을수록, 또래 의사소통과 또래신뢰도가 높을수록, 학교 선호도와 교사선호도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권위적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동 학교적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 학교적응은 아동 내재적 문제행동($r=-.01, p < .05$), 아동 외현적 문제행동($r=-.01, p < .05$), 또래 소외($r=-.14, p < .01$), 어머니 권위주의적 양육행동($r=-.11, p < .01$), 어머니 허용적 양육행동($r=-.06, p < .05$)과는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내재적,

외현적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아동이 또래로부터 소외될수록,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동 학교적응 점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동 학교적응에 대한 관련 요인들의 예언 정도와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학교적응 관련 변인인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13%였다, $F(13, 585) = 6.60, p < .001$. 학교적응에 대한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표 2. 아동 학교적응 관련 회귀분석

| 독립 변인 | | 회귀 1(통합) | | 회귀 2(심리) | | 회귀 3(사회환경) | | 회귀 4(어머니) | |
|-----------------|----------|-------------------|-------------|-------------------|-------------|-------------------|----------|-------------------|----------|
| | | 베타 (β) | <i>t</i> | 베타 (β) | <i>t</i> | 베타 (β) | <i>t</i> | 베타 (β) | <i>t</i> |
| 아동 심리 | 전반적 행복감 | .01 | .16 | .25 | 5.34*** | | | | |
| | 자존감 | -.04 | -.76 | .01 | .01 | | | | |
| | 문제 행동 | 내재적 외현적 | -.42 .38 | -1.30 1.19 | -.48 .48 | -1.40 1.39 | | | |
| | 친구 수 | .03 | .73 | | | .01 | .24 | | |
| 사회 환경 | 또래 애착 | 의사소통 | .04 | .70 | | | .04 | .71 | |
| | | 신뢰 | .04 | .74 | | | .04 | .80 | |
| | | 소외 | -.09 | -2.10* | | | -.07 | -1.86* | |
| | 학교 선호도 | .17 | 3.20*** | | | .17 | 3.75*** | | |
| 교사 선호도 | .14 | 2.72** | | | .14 | 2.89** | | | |
| 어머니 양육 행동 | 권위적 | -.01 | -.03 | | | | | .02 | .37 |
| | 권위주의적 | -.11 | -2.30* | | | | | -.10 | -2.10* |
| | 허용적 | .03 | .50 | | | | | .01 | .01 |
| R^2 | | .13 | | .06 | | .11 | | .01 | |
| adj. R^2 | | .11 | | .06 | | .10 | | .01 | |
| <i>F</i> | | 6.60*** | | 11.07*** | | 12.82*** | | 2.54* | |

* $p < .05$, ** $p < .01$, *** $p < .001$

양육행동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베타계수(β)를 비교해본 결과 학교선호도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교사선호도 > 어머니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 또래소외 순으로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다. 아동심리 변인들은 학교적응 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변인은 사회환경 및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이었으며 특히 사회환경 변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관련요인들을 보다 자세히 탐색하기 위해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을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심리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6%이었다, $F(4, 619) = 11.07, p < .001$. 아동심리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베타계수(β)를 비교해 본 결과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아동 자존감 및 아동 내재적, 외현적 문제행동은 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적응에 대한 사회환경 변인들의 설명력을 탐색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적응에 대한 사회환경 변인들의 설명력은 11%이었다, $F(6, 626) = 12.82, p < .001$. 베타계수(β)를 통해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학교 선호도가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교사 선호도 > 또래 소외 순으로 설명력이 높았다. 친구 수, 또래 의사소통, 또래 신뢰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변인이 아니었다.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1%이었다, $F(3, 595) = 2.54, p < .001$. 양육행동 변인 중 권위주의적 양육행동만 유의미한 설명 변인이었고, 권위적 양육행동 및 허용적 양육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

남아 학교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성별이 학교적응에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남아와 여아를 따로 분리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되었다. 남아들의 학교적응과 관련 있는 독립변인인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의 설명력은 13%이었다, $F(13, 294) = 3.78, p < .001$.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베타계수(β)를 비교해본 결과 남아 학교적응은 교사선호도와 또래신뢰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선호도 > 어머니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남아들만 따로 분리하여 독립변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사회환경 및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만 설명력 있는 변인이었고 아동심리 변인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아동전체를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남아들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관련 변인에 대한 자세한 탐색을 위해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을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심리 변인의 설명력은 5%였다, $F(4, 318) = 4.68, p < .001$. 아동심리 변인들의 베타계수(β)를 비교해 본 결과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그 외 변인들은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3 참조). 사회환경 변인들만의 설명력을 탐색하기 위해 독립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환경 변인들의 설명력은 10%이었다, $F(6, 319) = 6.19, p < .001$. 베타계수(β)를 통해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교사선호도와 또래신뢰가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학교선호도가 설명력이 높았다.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2%이었다, $F(3, 304) = 2.40, p < .001$. 베타계수(β)를 비교해본 결

표 3. 남아 학교적응 관련 회귀분석

| 독립 변인 | | 회귀 1(통합) | | 회귀 2(심리) | | 회귀 3(사회환경) | | 회귀 4(어머니) | | |
|------------|----------|-------------------|---------------|-------------------|---------------|-------------------|--------|-------------------|--------|--|
| | | 베타 (β) | t | 베타 (β) | t | 베타 (β) | t | 베타 (β) | t | |
| 아동 심리 | 전반적 행복감 | -.09 | -1.02 | .19 | 2.85** | | | | | |
| | 자존감 | -.01 | -.20 | .04 | .63 | | | | | |
| | 문제 행동 | 내재적 외현적 | -1.21 1.15 | -1.97 1.87 | -1.03 1.03 | -1.55 1.55 | | | | |
| | 친구 수 | .01 | .01 | | | -.04 | -.64 | | | |
| 사회 환경 | 의사소통 | -.04 | -.60 | | | -.05 | -.75 | | | |
| | 또래 애착 | 신뢰 | .19 | 2.45* | | | .17 | 2.39* | | |
| | | 소외 | .01 | .14 | | | .01 | .26 | | |
| | 학교 선호도 | .16 | 2.22* | | | .11 | 1.78* | | | |
| | 교사 선호도 | .19 | 2.66** | | | .17 | 2.65** | | | |
| 어머니 | 양육 행동 | 권위적 | -.01 | -.02 | | | | .01 | .10 | |
| | | 권위주의적 | -.15 | -2.35* | | | | -.14 | -1.99* | |
| | | 허용적 | .04 | .57 | | | | -.03 | -.37 | |
| R^2 | | .13 | | .05 | | .10 | | .02 | | |
| adj. R^2 | | .01 | | .04 | | .09 | | .01 | | |
| F | | 3.78*** | | 4.68*** | | 6.19*** | | 2.40* | | |

* $p < .05$, ** $p < .01$, *** $p < .001$

과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만 유의미한 설명 변인이었다.

여아 학교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여아들만 따로 분리하여 학교적응과 관련 있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14%였다, $F(13, 277) = 3.51, p < .001$. 여아만 따로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남아만 따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표 2, 표 3, 표 4 참조).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베타계수(β)를 비교해본 결과 여아들의 학교적응은 또래소외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선호도가 설명력이 높았다(표 4 참조). 아동심리변인과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 중 유의미한 설명 변인은 없었다. 이 결과는 전체 아동에 대한 분석과 남아들만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와는 달랐다(표 2, 표 3, 표 4 참조). 여아들의 학교적응을 설명하

표 4. 여아 학교적응 관련 회귀분석

| 독립 변인 | | 회귀 1(통합) | | 회귀 2(심리) | | 회귀 3(사회환경) | | 회귀 4(어머니) | |
|-----------------|--------------------|----------|----------|----------|---------|------------|----------|-----------|------|
| | | 베타 | t | 베타 | t | 베타 | t | 베타 | t |
| | | (β) | | (β) | | (β) | | (β) | |
| 아동 심리 | 전반적 행복감 | .08 | .96 | .28 | 4.06*** | | | | |
| | 자존감 | -.04 | -.54 | -.03 | -.44 | | | | |
| | 문제 행동 | 내재적 | .14 | .40 | -.05 | -.14 | | | |
| | 외현적 | -.12 | -.34 | .07 | .21 | | | | |
| 사회 환경 | 친구 수 | .07 | 1.10 | | | .06 | .99 | | |
| | 의사소통 | .08 | .96 | | | .07 | .95 | | |
| | 또래 애착 | 신뢰 | -.10 | -1.18 | | | -.08 | -1.08 | |
| | 소외 | -.23 | -3.82*** | | | -.22 | -3.83*** | | |
| | 학교 선호도 | .17 | 2.27** | | | .21 | 3.37*** | | |
| | 교사 선호도 | .03 | .35 | | | .04 | .53 | | |
| 어머니 양육 행동 | 권위적 | -.02 | -.34 | | | | | .04 | .58 |
| | 권위주의적 | -.05 | -.64 | | | | | -.04 | -.59 |
| | 허용적 | .01 | .07 | | | | | .03 | .46 |
| | R ² | .14 | | .07 | | .14 | | .01 | |
| | adj.R ² | .10 | | .06 | | .12 | | -.01 | |
| | F | 3.51*** | | 5.35*** | | 9.02*** | | .31* | |

* $p < .05$, ** $p < .01$, *** $p < .001$

는 관련 변인에 대해 보다 자세히 탐색하기 위해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을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심리 변인만 따로 분석한 경우 설명력은 7%였다, $F(4, 296) = 5.35$, $p < .001$. 베타계수(β)를 비교해 본 결과 여아의 전반적 행복감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그 외 변인들은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4 참조). 사회환경 변인들만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환경 변인들의 설명력은 13%였다, $F(5, 301) = 9.02$, $p < .001$. 베타

계수(β)를 통해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또래 소외가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학교선호도가 설명력이 높았다.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1% 이었다, $F(3, 287) = .31$, $p < .001$. 여아의 경우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을 투입한 분석에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변인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없었다.

논 의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 변인의 탐색을 위해 아동심리 요인, 사회환경 요인, 어머니 양육행동 요인으로 세분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관련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사회환경 변인과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만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3%였다. 추가적으로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의 독립적인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합적 분석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아동심리변인만 분석한 모형에서 학교적응에 대해 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이었다. 전체 독립변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아동심리변인이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이었으나 아동심리변인만을 분석하였을 때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며 설명력이 6%로 나타나 통합적 분석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된 원인을 추후 분석을 통해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희은과 문수백(2011)은 학교적응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에서 가족 응집성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들의 직·간접 경로를 파악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분석에서는 경로분석이나 매개변인 분석 등을 통해 학교적응과 관련 있는 독립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나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원인 변인들 간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회환경 변인만 따로 분석한 경우를 살펴보

면 사회환경 변인이 아동 학교적응을 11%로 설명하고 있어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적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선호도, 교사선호도, 또래소외 순으로 유의미한 설명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적응에 있어서 사회환경 변인들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즉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느낌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서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이 또래에게 느끼는 소외감은 학교에 대한 적응도를 낮추는 변인임도 파악되었다 (백소영, 이준우, 임수정, 2018; 조용주, 최홍일, 2015).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또래소외 측정도구의 문항 내적합치도가 .39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활용된 이유는 또래애착 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하위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또래 소외 변인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그러나 추후 연구를 통해 학교적응 관련변인으로서의 또래 소외와 또래관계 변인은 다른 측정도구를 통해 면밀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만 독립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이었다. 즉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 학교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통제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은 학교적응에 부정적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김혜선, 이지민, 2018; 박영진, 2019; 조용주, 최홍일, 2015).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학교적응 및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 역시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고하고 있어(박영진, 2019; 이강훈, 2018), 본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행동 요인도 포함하는 확장된 모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이 아동 성별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아와 여아를 따로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아들을 분리한 후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환경 변인과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만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성별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아동을 함께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남아들을 따로 분리한 후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이 학교적응에 대해 각각 어떠한 상대적 영향력을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한 분석 결과 아동심리 변인들 중에서는 전반적 행복감이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며, 사회환경 변인들에서는 또래신뢰와 학교선호도 그리고 교사선호도가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양육만이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과 거의 동일하였다.

셋째, 여아들만 따로 분리하여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모든 변인들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환경 변인만이 유의미하였으며 설명력은 14%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남아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었다. 전체아동과 남아만 분리한 경우에는 사회환경 변인과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이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나 여아만 분리

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사회환경 변인만이 유의미하였다. 여아만 따로 분석한 결과는 구체적인 변인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학교선호도, 교사선호도, 또래소외가 유의미한 변인이었고 남아만 따로 분석한 경우는 학교선호도, 교사선호도, 또래신뢰가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여아만 따로 분석한 경우에는 또래소외와 학교선호도만이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여아들을 따로 분리하여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 각각의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아동심리변인들의 영향력은 6%이었고 전반적 행복감이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며 사회환경 변인들의 영향력은 13%였으며 또래소외와 학교선호도가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은 영향력이 1%였으며 유의미한 변인이 없었다.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 각각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도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남아들만 따로 분석한 결과와 다른 양상이 발견되었다. 즉 사회환경 변인의 영향력에서 나타난 여아의 결과는 전체아동과 남아만 따로 분석한 결과와는 달리 또래소외와 학교선호도만 유의미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아들의 경우에는 또래신뢰가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또래소외가 중요한 영향력 변인이었다. 아동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 성별이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학교적응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 남아와 여아의 성차를 고려하여 학교적응을 도모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아의 경우는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래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여아의 경우는 또래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또한 남자와 여자의 또래관계 형성의 기제가 다름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관련요인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또래적응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학교적응에서도 남아가 더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인 선형연구(김충일, 2018)의 결과와 더불어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남아와 여아가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아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와 남녀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 또래소외가 동일하게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여아들의 또래소외 점수가 학교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아를 분리하여 분석하였을 때 부모변인 중에서는 유의미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는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학교적응력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때 자녀의 성별을 고려하여 양육행동을 달리해야 함을 시사한다(박성혜, 윤종희, 2013; 이귀옥, 2017). 예컨대, 또래관계에서 남아는 또래신뢰가 학교적응에 더 중요한 변인이며 여아는 또래소외가 학교적응에 대해 부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임이 밝혀진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부모들은 자녀의 성별을 고려하여 또래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달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행동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적응과 관련 있는 개개 변인들을 분리하여 분석한 후 각각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 본 분석결과는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남아와 여아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아동심리변인은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을 통합하여 분석 하였을 때 영향력 있는 변인이 아니었으나 아동심리 변인만을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설명력이 있었다. 전체아동의 경우는 아동심리 변인의 설명력이 6%, 남아의 경우는 5%, 여아의 경우는 7%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심리 변인 중 전반적 행복감은 전체아동, 남아, 여아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은 삶의 여러 영역에 걸쳐 적응적 효과를 지니며 객관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에 의한 행복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효과를 갖는다는 선형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강수현, 2019; 이진화, 조인경, 2018; Compton, 2005; Bartels, 2015). 따라서 아동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이 느끼는 개인적 및 주관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관련요인을 탐색해보고자 전국 규모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아동패널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1400명 이상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633개의 사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자료수집이 교사 평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능한 사례의 수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한된 사례수는 분석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 대한 총 설명력이 13%로 나타난 것은 이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대상자의 수가 많을 경우 이를 기반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후 연구 대상자의 응답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자료수집방법을 대안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아동의 적응적 발달에 관한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으나 다른 영역에서의 적응에 관한 연구 주제의 확장을 통해 아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어머니 양육행동 요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요인을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을 동시에 포함하여 아동 발달에 중요한 생태학적 요인을 전국 규모의 아동을 대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학교적응 관련 요인을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그 영향 요인을 탐색해 봄으로써 아동의 학교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효과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이 각각 달리 나타난 결과는 아동의 학교적응 및 다양한 사회적 적응의 발달에 있어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및 교사와 부모의 아동에 대한 상호작용이 달리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분석된 본 연구의 결과는 이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진급하여 학교적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며, 본 연구의 결과가 아동기 학교적응 증진을 위한 요인 규명에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기를 넘어서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생애 발달에 적응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강수현 (2019).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초등학교 1학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3(2), 165-194.
-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권혜진, 성미영 (2014).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4), 395-403.
- 김분, 최연실 (2012). 초등학생의 부모, 교사, 또래 애착과 유형별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 **대한가정학회지**, 50(1), 1-13.
- 김신애, 이형실, 임수경 (2008). 남녀 청소년의 가족체계유형과 학교생활적응 및 행동문제의 관련성.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4), 1-17.
- 김영숙, 조한익 (2015).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도 및 주관적 안녕감의 종단적 인과관계와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교육심리연구**, 29(4), 845-871.
- 김충일 (2018).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7(4), 157-172.
- 김혜선, 이지민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비교. **상담심리교육복지**, 5(1), 91-102.
- 남영자, 박태영 (2009).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4), 47-71.

- 박성혜, 윤종희 (2013).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개인적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147-169.
- 박영진 (2019). 개인, 가족, 사회변인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설명력. **아동교육**, 28(1), 39-57.
- 박용한 (2014). 중학생의 미디어 이용, 정서행동문제,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역할. **교육심리연구**, 28(4), 691-710.
- 박은영 (2011).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6), 1-27.
- 박희경, 강인설 (2014). 아동의 행복에 대한 개념 연구. **아동과 권리**, 18(3), 367-385.
- 백미숙, 조옥귀 (2017). 아동의 행복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 **현실치료연구**, 6(2), 13-31.
- 백소영, 이준우, 임수정 (2018).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영향에서 보호요인인 또래요인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20(4), 109-136.
- 백승영, 이승희 (2014).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및 임상 위험 차이. **정서행동장애연구**, 30(2), 207-231.
- 백승희, 전현정, 정혜원 (2014).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휴대전화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5(4), 167-188.
- 서혜전, 노성향 (2018). 아동의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10(4), 55-70.
- 선영운 (2014). 초등학생의 사회적 관심, 안녕감, 학교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525-543.
- 성정혜, 김춘경 (2019).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아동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육아정책연구**, 13(2), 47-71.
- 안선희 (2002). 유아의 어머니, 교사, 또래와의 관계와 유치원 적응.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3), 163-180.
- 염정원, 조한익 (2016).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과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30(1), 195-223.
- 유선희, 박보경, 도현심 (2015).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학회지**, 36(2), 55-74.
- 원재순, 김진숙 (2016).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3(9), 177-205.
- 이강훈 (2018).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3(6), 399-425.
- 이경남 (2008).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11-224.
- 이경상 (2011).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종단적 변화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18(2), 131-155.
- 이귀옥 (2012). 성별, 자아탄력성, 학습습관과 부모 양육방식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적응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 295-322.
- 이봉주, 민원홍 (2015). 아동·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문제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청소년학연구**, 22(8), 335-361.
- 이영애, 정현희 (2015). 청소년 내재화 및 외현화

- 문제행동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청소년상담 연구, 23**(2), 253-276.
- 이영예, 안권순 (2013).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격특성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20**(11), 257-281.
- 이은주 (2011).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와 부모양육행동의 상호적 인과관계: 부모효과 및 아동효과와의 검증. **인간발달연구, 18**(2), 21-41.
-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이진화, 조인경 (2018). 학교환경, 가정환경, 개인 환경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 학연구, 49**(1), 39-59.
- 이희은, 문수백 (2011). 학령기 아동이 학교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61-174.
- 이희정, 조운주 (2010).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변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2), 253-278.
- 임선아 (2013). 민주적 부모 양육 태도가 아동의 자기 조절 학습 능력, 자존감, 학교 적응에 미치는 구조 모형 비교: 저소득층 아동과 비저소득층 아동. **교육심리연구, 27**(1), 125-142.
-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8). 가정 및 학교내 대인관계와 아동의 행복감 간 구조적 관계: 학교급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 70**(2), 145-170.
- 정미영, 문혁준 (2007).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 조용주, 최홍일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의 간접효과. **학교사회복지, 30**, 47-70.
- 조운주, 한준아, 김지현 (2019). 아동돌봄 유형과 부모 감독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8**(2), 95-105.
- 좌현숙 (2012). 청소년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9**(6), 1-28.
- 천유리, 한기순 (2012).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성향 및 관계 유지노력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22**(4), 875-892.
- 채선화, 김진숙 (2015). 학교급별 부모애착, 또래애착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 연구, 16**(4), 339-358.
- 현의숙, 황혜정 (2019).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지각한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5), 451-472.
- 황은희, 강지숙 (2012).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스트레스연구, 20**(3), 149-157.
- Bagwell, G.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rtels, M. (2015). Genetics of wellbeing and its components satisfaction with life,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A review and meta-analysis of heritability studies. *Behavior Genetics, 45*(2), 137-156.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stan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 *American*

Psychologist, 59, 20-28.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ompton, W. C. (2005).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Effects of psychological, socio-environmental,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factors on school adjustment in Korean children

Wonkyung Kim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Heekyoung Kw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socio-environmental,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factors on Korea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data used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came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 total of 633 children, their mothers, and teachers responded to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survey. Data were analyzed with bivariate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to investigate the relevant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with such variables as psychological(happiness, self-esteem, problem behaviors), socio-environmental (number of friends, peer attachment, school preference, teacher preference),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factors(authoritative, authoritarian, permissive). The results indicated that socio-environmental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fact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Sta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were peer trust, school preference, and teacher preference in male children, and peer rejection, school preference, and teacher preference in female children.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this area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were discussed.

Keywords: school adjustment, happiness, school preference, teacher preference, peer trust, peer rejecti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